

예술과 낙서의 모호한 경계선



70~80년대 전국 동네 담벼락마다 '소변금지'와 가위 그림의 낙서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전혀 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락카라고 불렀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집주인의 분노 감정을 표현한 듯 적어 놓은 게 한국 그래피티(graffiti, 굽다,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변금지는 오늘 얘기할 예술과 낙서의 경계의 모호한 선상에 위치한 것이 아닌 소변시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는 집 주인의 협박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일 뿐 도시의 미화를 헤치는 엄연한 낙서임을 강조한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으로 절대로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 1994년 취임한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Rudolf Giuliani)는 뉴욕시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낙서 지우기'를 제시했다. 당시 뉴욕 지하철은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것부터 지워야지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 여기며 깨어진 유리창 보수와 방화 되거나 오랜 시간 방치된 고물 자동차를 치우는 일명 도시 정화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범죄율이 대폭 하락하며 그래피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강조한 바 있다.

왜 정부의 입장에서 그래피티를 이토록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인가?

그래피티의 가장 큰 의미는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로 행해졌다.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고 공권력을 풍자하며 자연환경, 자본주의, 소비주의, 반전과 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공공장소에 표현됐다. 그래피티 작가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골칫거리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 그래피티 보다는 저항의 의미로 걸개그림을 걸었던 한국의 경우는 그래피티는 불법낙서로 간주돼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아직 공공미술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 그래피티는 반항적 메시지 전달보다는 예쁜 낙서나 건물 치장의 의미로 다루어지며 아직 범죄에 관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그래피티 관련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JonOne, Stay wild, 2019, Ink, crayon and pastel on paper mounted on canvas, 67x49cm, © JonOne •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Exhibition : Poetry in Motion, 2019, Galerie Brugier-Rigail, Paris, France)



홍일화 미술작가
여성의 미, 아름다움의 조건에 대해 회화적인 성찰을 보여준 작품을 그리고 있는 명성있는 재불작가로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저항과 반항의 안 좋은 의미로만 다루어졌던 그래피티가 언제부터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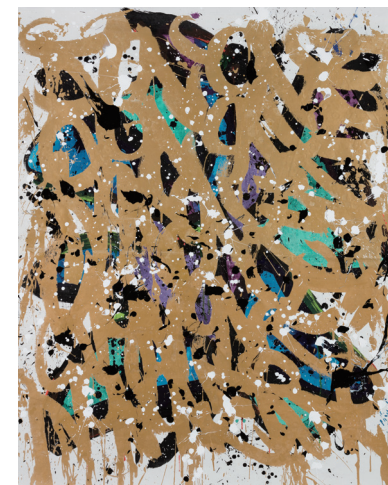
검은 피카소로 불리웠던 장 미셸 바스키아 (Jean-Michel Basquiat, 1960 ~ 1988, 뉴욕)와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 재치와 유머의 키스 해링(Keith Allen Haring, 1958 ~ 1990, 펜실베이니아), 이 두 명의 천재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뉴욕의 문화를 바꾸어 놓으며 현대미술로서 자리 잡는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래피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이 남아있어 예술과 낙서에 대한 찬반론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유럽에서의 그래피티는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선두주자로 2009년 소더비 경매에서 '위임된 의회'(Devolved Parliament)가 146억 원에 낙찰되며 가장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된 뱅크시(Banksy, 1974~, 브리스톨, 영국), 2007년 선보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양국 시민의 초상 사진을 붙이는 대규모 작업이나, 소통과 대화, 평화, 난민 문제를 호소하는 사진작가이자 거리 예술가 제이알 JR(본명 Jean Rene, 1983~, 파리) 그리고 뉴욕 출신으로 파리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존원(JonOne, 1963~, 뉴욕)은 현재 유럽 콜렉터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어반아트 작가이기도 하다. 크래쉬(John Matos Crash, 1961~, 뉴욕) 작가와 함께 1980년대 뉴욕에서 그래피티를 시작한 작가는 거리마다 자신의 예명 JonOne 을 써가며 점점 도시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작가의 작업 모티브가 된다.

JonOne, Le Chien, 2019, acrylic and ink on canvas, 120 x 150 cm, © JonOne •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Exhibition : Poetry in Motion, 2019, Galerie Brugier-Rigail, Paris, France)



JonOne, School of hardknocks, 2017, Acrylic on canvas, 105x100cm, © JonOne •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JonOne, Walking against the wind, 2018, mixed media on Korean paper Hanji mounted on canvas, 150 x 120 cm, © JonOne •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Exhibition : Birth of the Wind, 2018, Galerie Brugier-Rigail, Paris, France)



JonOne, Kingship, 2018, mixed media on Korean paper Hanji mounted on canvas, 150 x 120 cm, © JonOne •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Exhibition : Birth of the Wind, 2018, Galerie Brugier-Rigail, Paris, France)

유럽에서 그래피티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프랑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존원이 있다. 1984년 뉴욕에 그래피티 스튜디오 "156 All Starz"를 설립한 존원은 당시 예술계와 연예계 유명인사가 모여들며 화려한 전성기에 있었던 뉴욕 클럽 "Studio 54"에서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과 잦은 교류를 가졌다. 존원으로 활동하는 존 앤드류 페렐로(John Andrew Perello)는 17세부터 할렘의 건물 벽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미술을 독학한 작가는 현대미술과 힙합뿐만 아니라 지하철, 도시의 벽, 광고판 등 스트리트 라이프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추게 된다. 1987년에는 파리에 정착하였고, 거리의 벽에서 실내의 캔버스로 작업 스타일의 변화를 맞이한다.

그래피티의 '물'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창조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낸 존원의 주된 콘셉트는 '프리스타일'이다. 도시의 역동적인 색들과 에너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존원은 당시 대다수의 그래피티 작가들의 구상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추상적인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의 캔버스에 빈 공간은 없다. 캔버스의 구석구석이 다채롭고 볼드한 색과 선으로 채워진다. 캔버스를 즉흥적으로 채워내는 작업방식은 모양과 형태가 규정되지 않는 존원의 삶, 그 삶의 환희와 나란히 늘어놓는다.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갯빛(gray)'으로 회고하는 작가는 그래피티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삶에 무지개 빛을 불어넣고자 한다. 거리에서 그래피티를 하듯 자신의 캔버스 위에도

작업하는 존원은 다양한 색채 사용과 잦은 폴록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으며 드립핑을 접목하며 작품 안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리에 정착하고 프랑스 미술계에 이름을 알린 존원은 2015년 현대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프랑스 문화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를 받았다.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파리 국회의사당에서 선보이기도 하였다.

스트리트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며 헤네시, 에어프랑스, 게를랑, 롤스로이스, 페리에 등 우수 브랜드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LG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으며 2016년 예술의 전당 <위대한 낙서>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21년 6월 13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리는 그래피티 아트 기획전 <STREET NOISE>를 통해 존원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존원과 크래쉬와 함께 닉 워커(Nick Walker), 무슈 샤펜(M. Chat),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 카트린 프리드리크스(Katrin Fridriks), 세트(Seth) 작가들과 함께 프랑스 미술계에 '어반 아트'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브루지-히가이 갤러리'는 거리예술의 전문적 장르를 소개하고 2016년 한국에 진출하여 예술의 전당 <The Great Graffiti>, 일민미술관 <불멸사랑> 등 국내 우수 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